도, 새만금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2~3→5만톤급 이상으로 '농어촌공 항로 준설 중단 구간 준설 재개' 등 추진

새만금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가 당초 2~3만톤급 접안 계획에서 일반화문 5만톤급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는 2016년 항만분야 5대 현안과제를 세우고 그 일환으로 '새만금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와 '농어촌 공사 항로 준설 중단구간에 대한 준설 재개' 등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도가 발표한 2016년 항만분야 5대 현안과제는 ▲새만금신항만 건설 총 사업비 증액 변경 ▲새만금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농어촌공사 항로준설 중단구간 준설 재개 ▲미리나 항만 개발 등이다.

이에 도는 지난 4일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재한 '시·도 해양수산 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와 '농어촌공사 항로 준설 중단구간에 대한 준설 재개'의 2가지 현안을 건의했다.

그 결과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2~3만톤급 접안계획을 일반화물 5만톤급 이상으로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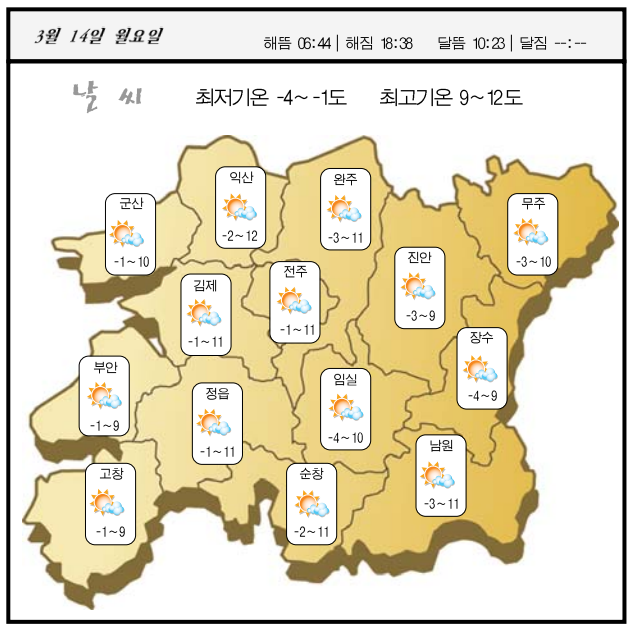
또한 농어촌공사 준설 중단구간 준설 재개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만금신항만 접안시설은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에 따라 접안시설이 2~3만톤급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추진 등 국내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특수성 등 미래수요 반영에 비춰볼 때 접안시설의 확대가 필요함을 인지, 5만톤급 이상 중·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군산해수청이 MOU를 체결하고 '새만금산단 매립 및 군장항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추진됐던 항로준설이 지난 해 기재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의해 중단됐었다. 이에 항로준설 중단이 지속될 경우 통항선박의 상시 안전한 통항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준설 재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도 고재현 항만하천과장은 "새만금 신항만 초기 건설 단계부터 접안시설(화물선 및 크루즈선) 규모를 10만톤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광양, 평택항 등 타항 실태파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군산항 농어촌공사 항로준설 중단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도내 지역출신 정치권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주 K-리그 개막전' FIFA U-20월드컵 관심 유도

전반전 종료 후 축구비빔밥 퍼포먼스 눈길

12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전북 현대와 FC 서울 개막식 경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남호 전북대총장, 박성일 완군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막전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주성에서 전북현대와 FC서울의 명승부가 펼쳐진 2016 K리그 개막전에서 '축구비빔밥'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퍼포먼스는 전주향토음식인 비빔밥과 축구공이 비벼지는 것으로 축구도시 전주, U-20월드컵 개최도시의 위상을 떨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2016 K리그 개막전인 전북현대와 FC서울 경기에 관람객이 총 3만2695명이 찾아 함성과 응원으로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선수대기석과 경기장 사이 트랙에 등장한 커다란 그릇(130cm, 100kg)에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전반전이 종료된 후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곽진 전북현대모터스FC 대표이사 등이 함께하는 축구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2017 FIFA U-20월드컵 전주 개최'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축구비빔밥은 1000명분으로, 1층 게이트 N/E석 9개 구간에서 관람객들에게 제공됐다.

축구비빔밥에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U-20월드컵을 모든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문화월드컵으로 치러내겠다는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전주음식의 세계화에 발맞춰 세계적인 축구도시로 위상을 드높인다는 구상이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비빔밥과 축구는 그릇 안의 많은 재료처럼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에게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면서 "각각의 포지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처럼 축구 관계자들과 서포터즈, 시민 모두와 함께 U-20월드컵을 세계적인 문화월드컵으로 치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현대는 이날 서포터즈와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파상공세를 펼치며, FC서울을 1-0으로 승리를 거뒀다.

전주시는 이번 개막전을 위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2178면 외에 경기장 내도로 800면과 기린대로 400면, 온고을로 400면, 혁신로 800면 등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부설주차장 300면을 무료 개방했다.

이와 함께 종합경기장과 전북도청을 오가는 셔틀버스 8대를 운행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변 진출입로에 인력 190명을 투입했다.

또한 1994번 노선 임시운행 버스를 지난해 1개 노선에서 3개로 확대하고, 경기 후 관람객들의 귀가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호남제일문 인근 기린대로에 임시 출구를 개설했다.

시는 이번 K리그 개막전과 올 시즌 빅게임 등을 통해 주·정차와 경기장 진출입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자유학기제, 학교-사회협력모델 가동 주목

도내 공공기관 등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어 학교-사회 협력모델 가동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자유학기제 기반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전국 10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도 '교사용 자유학기제 연계 창의발명프로그램 ABCD 4종'을 개발해 중학교 교사들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또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솔로몬테마파크도 자유학기제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법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군산대학교도 자유학기제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공학도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지역산업체 탐방과 공학도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운영한다.

전북동부보훈지청 역시 전주와 남원, 완주 등 8개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창 현충시설 탐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법제처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 법제관사업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도 자유학기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립과천과학관도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기관과 기업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도내 43개 공공기관·기업체와 자유학기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교육지원청은 400여 기관, 단위학교는 체험처 2,500곳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새만금신항-브레멘항 상생·협력방안 논의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11일 독일 브레멘 주정부 에카르트 셰링 경제부 차관과 브레멘물류공사(BLG) 마이클 블라흐 최고위원을 만나 새만금신항만과 브레멘항의 상호 발전 및 지속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청장은 "새만금신항만을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물류거점, 해양관광·레저기능을 포함한 복합거점 항만으로 개발 중"이라며 "새만금신항만은 항내 정온수역(파도가 없는 잔잔한 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선박 접안능력이 우수하고, 넓은 배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브레멘 주정부 셰링 차관과 브레멘물류공사 블라흐 최고위원은 "브레멘항은 유럽 최고의 자동차 항만이며,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나 비엠더블유(BMW), 벤츠 같은 유럽 차들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멘물류공사 관계자는 "오는 6월 '한독 물류컨퍼런스' 때 다시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청장은 그 시점에 브레멘물류공사를 새만금 현장에 초청하기로 했다.

/정영수 기자